

5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5583.90 (+490.36)		1116.41 (+137.97)
	금리 (연고채 3년)		환율 (원/달러)
	3.189 (-0.034)		1464.40 (-11.80)

# metro® 경제

SK 최태원  
젠스 황 다시 만난다  
HBM 공급 논의  
04



## 하루 만에 9.63% 되찾은 '롤러코스피'

### 중동발 폭격서 '반등'

490.36p 오른 5583.90 마감  
유가에 민감·반도체 편중 구조  
글로벌 대비 유독 등락 폭 커

-7.24%, -12.06%, +9.63%. 국내 증시가 사흘간(3~5일)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간 전쟁이 터진 후 하루 건너 매·수도 사이드카가 반복됐다. 4일에는 폭락세가 거세지자 20분간 거래가 중지되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무역 의존도가 높고 반도체 '솔링'이 강한 한국 경제 구조의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련기사 2·3면>

5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90.36포인트(9.63%) 오른 5583.90에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 역시 137.97포인트(14.10%)된 1116.41에 장을 마쳤다. 국내 증시는 전날 '검은 화·수요일' 대폭락에 맞선 반발 매수세가 거셌다.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는 장 초반부터 주식을 싸게 사들이려는 투자자의 매수 주문이 과열 양상을 보면서 양쪽 시장에서 매수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 정지)가 발동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스마트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스1

됐다. 코스피는 연초 이후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직전인 지난달 27일까지 48%나 오르며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런데 이후 18.4% 하락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다. 코스피 하락률은 미국 S&P500(-0.9%), 독일(-5.9%), 영국(-3.9%) 등을 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처럼 중동산원유 의존도가 높은 일본(-7.8%), 대

만(-7.3%) 등의 2배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날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하락분을 상당 부분 회복했다. 글로벌 증시에 비해 유독 한국 증시가 이란 전쟁 이슈에 더 많이 흔들렸다는 평가다. 이 같은 배경에는 한국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유가 변동에 민감한 경제 구조를 안고 있는 점이 자리 잡고 있다. 유가(두바이유)는 전쟁 직전 배럴당 71.81달러 수준이었

는데, 3일에는 80달러를 넘어섰다. 중동산 원유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70%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유가가 급등할 경우 기업 부담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무역수지 악화과 물가 상승이라는 악재가 동시에 터질 우려가 크다. 반도체에 편중된 시장 구조도 문제로 지적된다. <2면에 계속>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메트로경제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부자들의 재테크 트렌드 엿보기

메트로신문이 오는 3월 24일(화)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을 개최합니다.

저성장 지속과 내수(소비+투자) 부진으로 국내의 경제는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불확실성은 경제에 가장 치명적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100세시대 현실화로 확실한 자산 설계가 절실합니다.

메트로신문은 '초고령사회와 생산적 금융-주식·부동산 등 자산의 재설계'를 주제로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국내외 경제와 주식·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고, '강남 부자'들의 재테크 트렌드를 엿볼 예정입니다.

- ◆ 행사명 : 2026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시즌1)
- ◆ 주 제 : 초고령사회와 생산적 금융  
- 주식·부동산 등 자산의 재설계
- ◆ 일 시 : 3월 24일(화) 오후 2시~5시00분  
(VIP 티타임 오후 1시40분 ~2시)
- ◆ 장 소 :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 ◆ 문 의 : 100세포럼 사무국 (02)721-9818,  
e-메일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 주 최 :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 재산권·직업의 자유 등 위험 소지”

국회입법조사처 해외 유사 입법례 찾기 힘들고 시장 경쟁력 훼손 '업계 반발'

국회입법조사처가 5일 금융당국의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 움직임에 대해 재산권, 직업의 자유·기업활동의 자유, 소급입법 등의 이유로 위험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은 위험 소지가 있으며 해외 주요국에서 유사한 입법례를 찾기 힘들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 최대주주의 지분율을 15~2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사실상 '준 금융기관'으로 대주주 영향력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업계는 가상자산 산업이 민간 주도과 자율성을 기반으

로 성장해 왔고, 거래소는 대부분 기술 기반 스타트업으로 출발해 유연한 지배구조를 유지해왔기에 대주주 지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규제를 넘어 시장 경쟁력과 기업이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학계·법조계에서도 헌법적 정당성과 산업적 타당성에서도 논란이 커 입법 이전에 공론화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입법조사처도 거래소의 지분을 강제로 나누도록 하면 재산권과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어, 규제가 정당인지 따져보아야 한다고 했다.

또 과거의 일을 새로 만든 법으로 다시 판단하겠다는 소급입법을 함으로써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가 적법하게 취득한 지분에 대해 사후적으로 강제 처분을 요구하는 규제를 할 경우 특단의 사정(중대한 공익적 사유 등)이 있지 않는 한 위험 판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경수 인턴기자 gws0325@



## “美·유럽·日 등 글로벌 오송 프로젝트 시동”

###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청주 '오송 캠퍼스' 개소식 “오가노이드, 손상조직 재생 동물실험 대체, 첨단 모델”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치료제 기업,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오송 캠퍼스'를 정식 개소하며 글로벌 재생의료 시장 공략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5일 오후 2시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위치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오송 캠퍼스' 개소식을 가졌다.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는 이 자리에서 오송 캠퍼스를 기반으로 시즌 2를 여는, '오송 프로젝트(OS-Ong)'의 비전을 공개했다. 오송 프로젝트는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기술을 글로벌 네트워크로 확장한다'는 뜻을 담았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유종만 대표와 오상훈 대표(왼쪽 다섯번째, 여섯번째)가 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위치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오송 캠퍼스' 개소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 대표는 “오송 프로젝트는 그동안 검증 받은 오가노이드 기술들을 세계 곳곳에서 쓰일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미국, 유럽, 일본, 베트남, 태국 등으로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가진 기술을 세계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소식에 모인 국내외 석학 및 산업계 전문가들은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오송 캠퍼스 이전으로 국내 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했다.

권석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장은 “단순 기술 개발에 머물지 않고 표준화까지 선점해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오가노이드사이언스와 지속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종상 툴젠 대표는 “오송 캠퍼스가 오가노이드의 새로운 혁신 요람이 될 것”이라며 “한국을 넘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기대했다.

이어지는 키노트 세션에서는

국제백신연구소(IVI) 한국후원회 이병건 이사장이 ‘한국 바이오의 미래 로드맵’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방영주 명예교수가 ‘오가노이드와 정밀의료’를 주제로 강연했다.

2부 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 석학 및 산업계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유종만 대표는 “오송 캠퍼스는 단순한 연구 시설이 아닌 국가가 인정한 첨단 오가노이드 기술력을 바탕으로 '오가노이드 클러스터'의 앵커 기업으로서 산업 전반의 성장을 견인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나갈 주요 포인트”라며, “충북 오송의 바이오 클러스터 인프라와 결합해 재생의료 분야의 글로벌 표준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 메트로 한줄뉴스



- ▲ 대통령경호처, 북악산 탐방 전면 개방... 탐방 안내소 재개 /사진 뉴시스
- ▲ 익산시장 최정호·박경철, 남원시장 이정린 출마 선언

- ▲ 산불 발생, 3~4월 '봄철' 집중... 원인 1위는 '입산자 실화'
- ▲ 생명지킴추진본부, 17개 광역센터와 핫라인... 자살예방 총력

- ▲ 이 대통령 사칭 담화문 유포... 30대 남성 불구속 송치
- ▲ 이 대통령 “기업, 수도권으로 전기 끌어오는 비용 세금으로 혜택... 전기요금 차등제 고민해야”